

곡성군 감전정지지원단 감동계전정 대행사업 추진

2월부터 3월까지 감나무 전정대행 사업 추진

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 등 취약농가 대상

곡성군이 곡성감전정지지원단에서 2월부터 3월까지 감나무 전정대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 일손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 취약농가가 대상이다.

재능을 나눈다는 취지로 기존 전정사 인건비 대비 저렴하게 비용을 책정했다. 희망자는 권역별로 상담 후 전정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곡성감전정지지원단 A씨는 "군 지원을 통해 습득한 소중한 기술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농가에 환원해 우리 군 감 산업 발전에 기여하

고 싶다. 지원단의 전정 기술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습해 지역의 감 재배 기술을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동계전정 작업은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한 필수 작업으로 높은 수준의 전정기술이 필요하다. 곡성감전정지지원단원들은 오랜 시간 교육과 연찬을 통해 전정기술 습득한 전문가들로 많은 취약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1년 결성된 곡성감전정지지원단은 2020년 농업인대학 감전정전문과과정 100시간을 이수한 농가 중 뜻있는 농가들이 모인 단체다. 매



년 교육과 연찬을 통해 꾸준히 전정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061-360-8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관절튼튼 근육튼튼 기공체조교실' 운영 돌입

오늘부터 신규 선착순 15명 모집

화순군은 관절염 예방·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기공체조교실 신규 대상자를 선착순 15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공체조는 기혈순환과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상반기(2월 8일~4월 19일)와 하반기(9월 6일~11월 3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주 2회(수,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진행된다.

운영 내용으로는 기공체조를 통한 심신 이완법과 호흡 훈련 및 명상 수업으로 구성된다. 보건소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올바른 건강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생활화하고 주체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79-5335, 5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공직자 역량강화 인문학특강 개최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담양군이 지난 26일 담빛농업관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인문학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홍기문 명예교수를 초청해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사람의 생각과 일상을 바꾸는 따뜻한 말의 중요성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양군 공직자들에게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강연을 통한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의 힘이 갈등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들에게 "말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 사람을 움직이고 담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문 교수는 재직 중 전남대 법과대학 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사소송전문가로서 광주지방법원 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올해 장성군 표준지 공시지가 5.96% 내렸다

2777필지 대상... 어려운 경제 여건 고려

올해 장성지역 2777필지의 표준 공시지가가 5.96% 낮아졌다.

군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최종안이 중

양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공시됐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국 공시지가 역시 평균 5.92% 가량 하락했다. 전국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까지 장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물가 인상을 수준으로 인상되다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21년 13.12%, 지난해 10.74% 인상돼 2년 동안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나주시, 2월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기대

택시 269대 요일 구분 없이 운행

나주시가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 269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년 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나주시의 경우 6부제를 적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1월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 갖고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래핑광고 택시에 지원하는 광고비용을 1대당 기존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도 1대당 매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1만원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 노후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컸던 영산포 택시 승강장 기사 휴게실, 나주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는 시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 비가림, 휴게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승객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청 직원이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상담 하고 있다.

구례군, 여순사건 피해·진상규명 신고 680건 접수

구례군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간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680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접수 건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 신고 건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라남도 지자체 가운데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접수 건수가 많았다.

구례군은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사건 발생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민과 유족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더스트리얼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